

주일예배

오전10:00

사회: 이상부장로

(*) 표시는 일어섭니다.

찬양
*목상기도
*사도신경
찬양
대표기도
성경봉독
설교
찬양
세례식
특송
헌금
헌금기도
*찬양
*축도
성도의 교제

한중사랑교회 찬양팀 / 다같이
사회자
다같이
찬송가 64장 / 다같이
이순옥 집사
에베소서 4장 17~24절 / 사회자
“하나님을 따라”/ 서영희 목사
찬송가 321장 / 다같이
집례: 서영희 목사
세례자(찬송가 270장)
찬송가 50장 / 다같이
서영희 목사
부흥(이 땅의 황무함을) / 다같이
서영희 목사
통지 / 새신자 환영

봉사안내

	11월 11일	11월 18일	11월 25일	12월 2일
봉사	3대1지역	3대2지역	3대3지역	3대4지역
특송	세례자	센터봉사팀	2대13지역	2대10지역
사회	이상부장로	박명기목사	조황주목사	이상부장로
기도	이순옥5집사	김영자2집사	안봉여집사	오경희집사

수요예배, 토요성경공부

수요예배	찬양:남승명	설교: 박명기<마 1:18-25>
토요모임	찬양:조황주	반별성경학습
백두산모임	매주수요일 오전10시	인도: 박명기 목사
주바라기모임	매주목요일 오전10시	인도: 조황주 목사

임송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알림

※ 무명을 제외한 주일,감사,십일조,절기,기타헌금의 명단이 주보에 기재됩니다.

■ 십일조: 김덕녀,김선화²,김수화,김영희⁸,남립,남정숙,박명숙⁸,박정숙³,박화실¹,성순임,안봉여,오정애,유용녀,윤명학¹,이종필,임남순,정향련,조현,최광준¹,황금선¹,황미옥,황화련,무명¹

■ 감사헌금: 강경실,강순화,강영자³,강중식,권영남¹,권옥순,권용(배혜숙),김경순⁴,김계순,김선희⁶,김성도²,김순애⁷,김옥분⁸,김옥선⁸,김옥화⁶,김용덕²,김윤자,김인숙²,김일순⁵,김중명²,김채숙²,김철운,김춘란²,김춘매¹,김충정,류련옥,류창해,문성열,박금혜,박선실²,박순옥⁴,박영수²,박용근,박일전,박정애⁷,박정애⁸,방영복,방준자,배인직,서영희목사,식순옥²,철영숙,성순임,성옥녀,신영자,안효식,양순녀,양홍길(박분녀),엄순금,원동일,유석기,윤기현,윤명학,윤미란,이동현,이동호,이명희³,이상부,이수산,이순자²,이연희²,이영애⁶,이영화⁶,이재영,이정숙⁶,이춘란²,이춘심,이필려,이환철,임경애,임채근,임춘,임송,장영자²,장혜자,진복덕,진옥순¹,정금선¹,정금선²,정복순²,정순자,정숙중,조미란,조영애¹,조정숙¹,주영옥,차춘복,채규범(박성업),채영금,채영주,최금자²,최복순³,최복순⁵,최성호(황기영),최옥금,최일²,최차남,하용범,한준화¹,함문홍,허봉련,황금선¹,황기향,황보국,황애란,황옥화,황화련,무명¹

■ 선교헌금: 정옥순²,하용범 ■ 건축헌금: 김일³,임정화,조영애¹,채영금,최성호²

■ 후원(일반): 김수화,이옥교,정향련 ■ 약값헌금: 안봉여

◎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간중) “민들레 홀씨되어” - 이상부 장로 -

올해도 우리는 한중사랑가을소풍을 알리는 전단지지를 들고 가리봉시장, 대림시장, 독산동시장, 대림역, 디지털단지역을 누비고 다녔다. 토요일오후, 주일오후 내내 "한중사랑 잔치에 놀러 오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행부새처럼 되내이며 우리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몇 년 전엔 한국 분들에게 잘못 드린 적도 있지만 지금은 99%는 동포들에게 전달한다. 나 스스로도 정말 대단하구나 하며 놀란다. 이제 우리 동포들의 냄새와 느낌을 확실히 안다^^ 올해 준비한 전단지 1만2천장이 전부다 나누어졌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엄청난 인원이 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교역자 사무실은 들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참석한 인원은 작년보다도 적은 수가 참여 한 것 같다. 원당역으로 오신분의 숫자를 잘 알 순 없지만 2,000여명 정도 참석 하셨으리라 예상되었다. 한 집사님은 본인이 뿌린 전단지가 수백 장인데, 그리고 그 전단지에 자기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까지 적어 들렸는데 그 전단지를 보고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무척 서운해 하셨다고 했다. 내가 뿌린 전단지도 200장은 되었을 텐데 그렇게 오시겠다고 내손까지 잡으셨던 분들 중에서 오신분이 몇 명일까? 나는 알지 못한다. 소풍날 축사를 하신 송용필 회장님은 우리나라 교계에서는 대단히 존경을 받고 또한 유명한 분이시다. 그 분은 예배시간 내내 연로하신 분이 우리 예배장면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으셨다. 헌금시간에 보니 봉투가 없어서 지갑에 있던 돈을 전부 헌금을 하시는걸 보았다. 내년에도 꼭 초청해 달라고 하셨다. 다음날 카이간 목사안수식에 담임목사님이 안수위원으로 갔더니 모든 분이 우리교회 행사에 대해 말씀하시더라. 내 친구 어머님(故 이근목장로님 부인)은 우리잔치 보고 가서 한참이나 우셨다. 이런 귀한잔치에 돌아가신 장로님과 같이 보지 못해서.... 인터넷방송에 우리행사를 취재했던 고교친구 덕에 고교 신우회에서는 한중소풍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했다. 우리잔치에 대해서 다음날 밤(월요일) 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중사랑가을소풍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난 11년간 우리잔치를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돌아온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마 다행처럼 바지가 흘러 내리는 줄 모르고 춤추셨을 것이다. 우리가 뿌린 전단지 보고 몇 명오지 않았더라도, 1만2천장을 전달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고 가슴이 메셨을까? 지금은 전단지를 보고 오지 않더라도 전단지에 새겨진 '한중사랑교회' 우리 교회는 분명 기억되었고 그 언제간 그것이 씨앗이 되어 열매로 돌아오는 은혜가 분명 있으리라. 우리가 뿌린 그 전단지... 민들레 홀씨되어 뿌려진 그 전단지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꽃피우리라 확신해본다.

출석연왕

지역	교구	28일	4일	지역	교구
1-01	101	9	11	2-06	21
	102	8	9		21
1-02	103	9	7		21
	104	6	5	2-07	21
	105	7	7		21
1-03	106	7	5	2-08	21
	107	8	6		21
	108	5	4		21
1-04	109	7	8	2-09	21
	110	5	9		22
	111	3	4	2-10	22
	112	9	10		22
1-05	113	8	7		22
	114	6	5	2-11	22
	119	5	3		22
	115	4	7		22
1-06	116	4	5	2-12	22
	117	6	2		22
	118	5	3	2-13	22
	119	8	10		23
1-07	120	9	3	2-14	23
	121	6	5	2-15	23
	122	8	6	2대 소계	30
1-08	123	5	9		30
	124	3	3	3-01	30
	125	9	8		30
	126	9	6		30
1-09	127	8	8	3-02	30
	128	6	8		30
	129	4	5		32
1-10	130	6	6		30
	131	6	7	3-03	30
	132	6	8		30
1-11	133	6	7		31
	134	7	13	3-04	31
	135	7	7		31
1-12	136	5	3		31
	137	7	4	3-05	31
1-13	138	2	2		31
	140	5	4	3-06	31
	1대 소계	253	249		32
2-01	201	9	8		31
	202	9	6	3-07	31
2-02	203	9	6		31
	204	12	11		40
2-03	205	6	5	4-01	40
	206	15	9		40
2-04	207	6	6	4-02	41
	208	8	9	5-01	50
2-05	209	6	5	3-대 소	
	210	6	8		